

남볼링, 세계를 쓰러뜨리다

‘세계선수권’ 사상 첫 종합우승

광양시청 최복음·박종우 금 3 합작...남 2인조 한국 첫 금

최복음, 손목 부상 이겨내고 AG·전국체전 이어 세계 제패

광양시청 최복음(27)과 박종우(24)가 세계 남자볼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합작하며, 한국을 사상 첫 종합우승으로 이끌었다. 특히, 최복음은 손목 부상을 이겨내고 3관왕을, 박종우는 2관왕을 차지했다. 이들은 또 2인조에 출전,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금빛 스트라이크를 작렬했다.

최복음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2014 세계 남자볼링 선수권대회 2인조·5인조·개인종합에서 우승,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최복음은 14일 팀 동료인 박종우와 김정민·홍해솔(이상 인천교통공사)·강희원(부산시청)·신승현(수원시청)과 함께 5인조 결승에서 1097

점을 합작, 1088점을 획득한 미국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들은 준결승에서 호주를 1082-924로 제압한 데 이어, 결승에서도 세계 정상급 프로 선수들이 출전한 미국을 따돌렸다.

최복음은 앞서 지난 9일 박종우와 함께 한 2인조 결승에서 일본의 요시다 다이스케-아사토 슈사쿠를 410-396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일 맞대결로 펼쳐진 결승에서 최복음은 180점대로 주춤했으나, 인천 아시안게임 3관왕의 주인공 박종우가 226점을 때내, 승리를 장식했다. 이들이 일군 2인조 금메달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최복음은 개인전·2인조·3인조·5인조에서 각자 따낸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가리는 개인종합

에서도 56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2인조·5인조에 이어 3관왕에 올랐다. 마스터즈 1위로 결승에 진출한 그는 4관왕을 노렸지만 어렵게 동메달에 그쳤다.

지난 6월 전남체전 때 손목을 다친 최복음은 줄이어 개최된 아시안게임·전국체전·세계선수권대회에서 부상투혼을 발휘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춘수 광양시청 감독은 “손목 통증이 너무 심해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인 마스터즈는 포기하려고 했는데도 복음이는 자신이 이겨내야 할 부분이라며 출전을 강행했다”며 “부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시안게임·전국체전·세계선수권대회를 석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박종우는 최복음 등과 함께 2인조와 5인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3인조에서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 4개·동메달 4개를 획득, 캐나다(금1·동1), 덴마크(금1) 등을 제치고 사상 최초로 세계남자선수권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사상 첫 세계 남자볼링선수권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 대표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광양시청의 최복음(앞줄 맨왼쪽)이 3관왕을, 박종우(뒷줄 맨오른쪽)가 2관왕에 올랐다. <광양시청 제공>

“필 이유 증명하라”

축구대표팀 제주 훈련...슈틸리케 감독 무한경쟁 선언



제주도 전지훈련에 돌입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무한경쟁’을 선언했다.

슈틸리케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28명의 태극전사는 15일 제주도 서귀포에 마련된 숙소에서 오후 3시 30분께 시민운동장에서 첫 훈련을 치렀다.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슈틸리케 감독은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2015 호주 아시안컵을 마지막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차두리(FC서울)를 두고 “이번 전후 참가가 그에게 아시안컵 출전의 보증수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차두리 역시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을 위해 뛰어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그가 이번 전후를 통해 아시안컵에서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대표팀 부임 후 차두리와 이동국(전북 현대) 등을 뽑으면서 배터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1월 중동 원정 평가전을 소화한 뒤에는 차두리에게 아시안컵까지 뛰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 차두리마저도 이번 전후에서는 테스트를 받는 28명의 선수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미 유럽파, 중동파 선수들이 슈틸리케 감독의 눈도장을 받은 상태다. K리그, 일본 J리그,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은 이번 전후에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한다.

슈틸리케 감독은 “김승태(포항 스틸러스)의 부상으로 대체 발탁된 이종호(전남 드래곤즈)는 나 뿐 아니라 다른 코칭 스태프가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해 발탁했다. 우리가 경기장에서 본 선수중에 주목해야 할 선수를 이번에 볼됐다”며 선수들에게 믿음을 보였다.

이동국, 김신욱(울산 현대)의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가장 취약한 포지션이 된 ‘윙톱’ 자리에 대해서는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1주일간 선수를 지켜보고 최종 명단은 계획대로 22일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스페인인 제로톱을 써서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면서 “다만 당장은 전형적인 타킷형 공격수를 쓰느냐, 제로톱을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번 전후를 공격진 구성을 고민하는 무대로 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베이스캠프로 쓸 호주 시드니에서는 이날 도심 카페에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의 소행이 추정되는 인질극이 발생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에 대해 “원래 계획대로 호주에 입성하겠다. 베이스캠프 변경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오로지 훈련과 대회 준비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경호를 맡을 호주 당국을 잘 따르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독보적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에서 열린 2014-2015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대회에서 네덜란드의 요르트 베리스마가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선두 질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파인스키 첫 월드컵 결승 진출

정동현, 스웨덴 월드컵 25위

한국 알파인스키의 간판 정동현(26·하이원)이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한국 알파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다.

정동현은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아레에서 열린 FIS 월드컵 회전 1차 시기에서 52초18의 기록으로 총 69명의 선수 중 28위에 자리해 30위까지 진출 가능한 결승에 해당하는 2차 시기에 올랐다.

그는 2차 시기(57초13)와 함께 1분 49초31을 기록, 최종 순위 25위로 대회를 마쳤다.

대한스키협회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최고 수준의 대회인 FIS 월드컵에서 한국 알파인 선수가 결승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회전 금·은메달리스트인 마리오 마트, 마르셀 히르셔(이상 오스트리아)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다.

마트는 2차 시기에서 기온 통과 실수로 완주하지 못한 가운데 현재 세계랭킹 1위를 달리는 히르셔가 1분40초37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과 월드컵 2차 시기에서 경쟁한 정동현은 “30위 안에 들었다는 것은 언제라도 메달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의미”라면서 “오늘의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2일부터 이탈리아 마돈나에서 열리는 월드컵에도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왕중왕전’서 유종의 미

배드민턴 이용대-유연성조, UAE 슈퍼파이널 출전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 1위 이용대(삼성전기)-유연성(수원시청)이 한 해 국제대회를 마무리하는 ‘왕중왕전’에서 유종의 미를 노린다.

이용대-유연성은 17일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2014 세계 배드민턴연맹(BWF) 슈퍼파이널 파 이널에 나선다.

이 대회는 배드민턴 국제경기 중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 다음으로 규모가 큰 슈퍼파이널 및 슈퍼파이널 프리미어의 한 해 성적을 바탕으로 매긴 순위에서 각 종목(남녀 단식·남녀 복식·혼합복식) 상위 8개 팀만 출전해 챔피언을 가리는 무대다. 한국 가에서는 종목당 최대 2명(조)까지 참가할 수 있다. 총상금은 100만 달러(약 11억원)가 걸려 있다.

2008년 대회가 시작된 이후 한국 선수 중에는 이용대-정재성이 2009년 남자복식 정상에 오른 것이 유일한 우승 기록이다.

지난해에는 김사랑-김기정(이상 삼성전기)이 남자복식 2위에 오른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올해는 이용대-유연성이 세계랭킹과 슈퍼파이널 순위 모두 1위를 지키는 가운데 우승에 도전한다.

이용대-유연성은 올해 초 이용대가 약물검사 절차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놓이면서 한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었음에도 12개의 슈퍼파이널급 대회 4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6월에는 일본오픈 슈퍼파이널, 인도네시아오픈 슈퍼파이널 프리미어, 호주오픈 슈퍼파이널에서 3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세계개인선수권대회에서 이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건 고성현-신백철(이상 김천시청)도 슈퍼파이널 순위 8위에 올라 남자복식에 나선다.

최근 상승세를 타는 남자단식의 손완호(김천시청)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연합뉴스